



2/4분기

미국 가계부채 감소와 시사점

김세중 선임연구원

■ 8월 1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4분기 미국 가계부채가 주택관련 대출 감소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함.

- 2/4분기 가계부채는 전분기에 비해 500억 달러 감소한 11조 4천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 부채가 최고치에 달했던 2008년 3/4분기에 비해 8.6%, 금액으로는 1조 8천억 달러 감소한 것임.
- 부문별로는 모기지 등 주택관련 대출이 400억 달러, 비주택관련 대출은 10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지 연체율은 1/4분기 10.5%에서 2/4분기 9.9%로 하락하여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 USA Today는 가계부채의 감소가 주택관련 대출기간 및 대출금액 축소, 신용카드 리볼빙 비율 감소 등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계 소비행태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함.

- 국책 모기지 업체 Freddie Mac에 따르면 1/4분기에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변경한 가계의 34%가 기존 대출보다 대출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분기에는 26%가 대출상품 변경 시 대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앞지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나, 카드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전환하는 리볼빙 규모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계가 카드 사용을 단기 대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감소했음을 의미함.
- 2001년 경기침체 직후에는 경기침체 시 억눌렸던 소비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USA Today 등, 8/29)